



‘천고마비’ 성큼 다가온 가을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진 29일 광주시 남구 사직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도심을 바라다보고, 청명한 가을 풍경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정부예산 광주 1조7800억·전남 5조5000억 SOC 삭감에 균형발전 ‘물거품’

광주 0.78%·전남 1.6% 늘었지만 증가폭 미흡
이명박·박근혜 정부 예산 확대 만회에는 역부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1조7800억 원, 전남 5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관련기사 3면>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400조5000억 원)보다 7.1%(28조4000억 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광주시는 0.78%(139억 원), 전남도는 1.6%(892억 원)가 늘었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안보다 7.1%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증가폭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순환도로(2구간) 건설 사업비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광주·전남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비 대부분이 올해 사업비보다 큰 폭으로 감액됐다.

정부가 내년도 SOC 관련 예산을 20% 대폭 삭감하면서 광주·전남 SOC예산에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지역 SOC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광주·전남지역 SOC예산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에 대한 SOC 관련 예산 삭감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광주시의 내년도 현안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229건, 1조7803억 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43건(768억 원), 계속사업은 186건(1조7035억 원)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로 ▲광주형일자리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용역비(8억 원) ▲고문·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족 치유를 위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조성 용역비(4억 원) ▲광주 송정역 선상역사 증축비(20억 원) ▲치과 등 생체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그러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광주순환도로 2구간 신설 사업비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 대비 1825억 원이 줄었고, 자동차전장부품 고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 예산 등은 환포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은 769건에 5조5033억 원이 반영됐다. 전남도가 애초 932건 사업에 7조1000억 원의 사업비를 건의한 점을 감안하면 예산 반영율은 76.2%에 그치는 수치다.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9억1000만 원) ▲연안여객선 현대화(300억 원) ▲할 수급안정을 위한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200억 원)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40억 원) 등의 주요 신규사업과 지역 소기업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하지만 애초 3000억 원을 건의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각각 154억 원과 455억 원만 반영됐다. 또한 3500억 원을 건의했던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비도 1999억 원만 반영됐고, 500억 원을 건의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비도 167억 원만 반영되는 대부분의 SOC 관련 예산이 절반 이상 가량 등 줄어들었다.

최현배·오광록기자 cki@kwangju.co.kr

내년 예산 429조

올해 보다 7.1% 늘어 ... 복지 146.2조 최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강도 높은 자율 구조조정을 병행,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천억 원) 대비 증가율은 7.1%(28조4000억 원)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 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뤘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 원으로 10%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6조 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000억 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軍, F15K 전투기 출격 폭탄투하 훈련

북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북한이 29일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요구로 29일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강경 대응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 기준으로 사거리 1000~3000km의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분류되지만, 비행거리가 2700km에 달한다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실行了.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운영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대배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 아파트 공사장 소음·분진 고동 ▶6면
- 청년 - 광주 평크약동 투피아트 ▶18면
- 월드컵 축구 이란을 잡아라 ▶20면

무안출발 일본여행

가을맞이 여행 & 추석 연휴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8월 24일(목) ~ 10월 9일(월)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8/24(목) ~ 9/21(목) [매주 월, 목요일 출발]

※선착순 한정 특가

북큐슈 펜션 실속 특가!!
9/7(목), 9/14(목) [단, 2회!]
아마가세 온천 별장 2박 499,000원 부터
알차게 떠나는 북큐슈 [실속] 599,000원 부터

항공 3박4일
북큐슈 4일 599,000원 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 부터
아마구치 4일 799,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4일 799,000원 부터 [9/18(월) 단, 한번!]

선박+항공 2박3일 [단, 2회!]
9/12(화) 나가사키·군함도 499,000원 부터
9/19(화) 북큐슈·벵부·시모노세키 349,000원 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황에 따라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부터(TAX포함)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효사랑 가족 3대 한정 특가!!!
10/1(일), 10/6(금)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최소 4인 이상 예약가능

9/30(토) ~ 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 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 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 부터
[품격] 아마구치 1,098,000원 부터

다낭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다낭·후에·호이안
베트남항공(VN)
17, 11/17(금)~18, 5/18(금)
8/23(수)~10/29(일)

화출발(3박4일) [실속] 699,000원 부터
금출발(3박5일) [실속] 799,000원 부터

준특급 699,000원 부터
특급 799,000원 부터

대만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티웨이항공

실속 599,000원 부터
품격 699,000원 부터

씨엠립(캄보디아) 4박5일

(무안출발)
스카이잉크항공

추석 선착순 한정 특가
9/30(토) [단 1회] 1,249,000원 부터

※ 날짜와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여행 : 1만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차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쟁 기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세칙)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입국, 가이드/기사, 숙박, 식음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